

1차 전지훈련 '고참 열외' 김기태 감독의 숨은 뜻은

고참에겐 신뢰·유망주에겐 동기 부여



어느 팀이나 고참과 코칭스태프의 관계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특히 선수기용에 관한 전권을 지닌 감독과 고참 사이의 갈등이 많다. KIA 김기태(사진) 감독은 그런 면에서 특화된 감독이다. 고참들을 다루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

KIA는 16일 미국 애리조나로 1차 스프링캠프를 떠난다. 그러나 30대 중반 이상의 고참급 선수들은 한국에 남는다. 이들은 광주에서 몸을 만들다 2월이 되면 2차 전지훈련지인 일본 오키나와로 먼저 향한다.

자칫 고참들의 '캠핑 제외'로 보일 수 있는 행보다. 그러나 KIA는 체력 담당 코치를 광주에 남겨 고참들의 훈련을 이끌게 할 생각이다. KIA 관계자는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나이가 있는 선수들은 훈련이 많이 필요한 젊은 선수들과 훈련 프로그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린 선수들과 달리, 경험이 많은 고참들은 알아서 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캠프를 이원화한 데는 김 감독의 확실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고참들이 알아서 몸을 잘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인데, 자유에 그만한 책임이 뒤따른다. 각자 몸 상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2월 오키나와에서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가차 없이 전력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 감독은 이런 식으로 고참들을 각성하게 만든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인정'이 있기에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 막연한 배려로 보일 수 있지만, 고참들을 선수수준으로 만들고 결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힘이 있다.

김 감독의 화법이나 행동에는 이처럼 많은 메시지가 담겨있다. 애리조나에서 훈련에 몰입하는 젊은 선수들에게도 메시지는 있다. 언제든 주축으로 뛸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고참이든 신인이든 김 감독의 말 속에 숨은 함의를 읽는 선수들이 경쟁에서 앞서갈 가능성이 높다.

이영노 기자 nirvana@donga.com

꼼수 판치는 KBO리그, 선수들만 '피멍'

1	야구단과 지자체는 공생관계대
2	프로야구의 품격을 지켜나가자
3	스타가 사라진다... 위기의식을 갖자!
4	FA 18년, 이제는 혁신이 필요하다
5	규약과 제도...투명하게 만들자!

KBO리그는 2015년 10구단 시대를 열고, 역대 한 시즌 최다관중(762만2494명·포스트시즌 포함)을 기록했다. '2015 WB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에선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하며 한국야구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러나 야구 전문가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지금이야말로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슈퍼스타가 사라지고 있고, 양적 발전을 이룬 만큼 질적 향상도 이뤄야 하나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별써'가 아니라 '아직' 서른다섯 살밖에 되지 않은 KBO리그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스포츠동아는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한국프로야구의 지향점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템퍼링·용병 다년계약·보류선수제도 등 구단들 규약 허점 파고들지만 KBO 방관 완화, 제도 약용하다 선수 뺏기는 촌극도 리그 투명성 지키려는 공동체 의식 필요

어떤 공동체가 세련됐는지, 미개한지를 가르는 요소는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도에 달려있다고 한다. 세계적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트러스트'를 통해 "트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이 갈린다"고 주장했다. 신용 있는 사회는 규칙 같은 사회적 약속이 투명하게 지켜지는 세상이다. 소위 꼼수와 편법과 관례 같은 말들은 '신용사회'의 반의어인 것이다.

범위를 KBO리그로 좁혀보자. 구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가운데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바다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질서라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KBO 규약이다. 그런데 구단들은 이 규약의 틈을 파고들기 일쑤다. 구단들 사이에 낀 KBO는 방관자적 태도를 취할 때가 적지 않다. 이렇다보니 리그 자체의 신뢰는 발붙일 곳 없고, '이기는 자만이 옳다'는 승리지상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프리이전트(FA) 계약 발표를 하면 곧 이끈대로 믿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믿을 수 없다. 템퍼링(사전접촉) 금지부터 이면계약 금지까지 지키는 구단만 따돌림 당하기 딱 좋다. KBO 연감을 보면 2009년과 2010년 FA 선수들은 전원 1년 계약으로 적시돼 있다. 해외리그에 있다가 KBO리그로 복귀한 선수의 다년계약은 두산과 이천현의 이면계약이 발각된 것을 계기로 2014년 1월에야 허용됐다.

FA 몸값 총액은 KBO리그 역사의 일부인데, 이 기간 그 역사가 소실된 것과 닮았다. 김태균이 2011시즌 이후 일본 지바 롯데에서 한화로 돌아왔을 때 계약기간과 총액이 얼마인지, 투명하지 못한 제도 탓에 알 수 없게 됐다.



NC 에릭 테임즈(왼쪽)와 지난 시즌까지 넥센의 에이스로 활약한 앤디 밴 헤켄은 외국인선수 다년계약 금지 규정을 여겼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KBO리그의 신뢰는 규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 스포츠동아DB

외국인선수 다년계약도 KBO 이사회의 세칙 상 금지된 것이지만,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실행위원회(단장회의)에서 다년계약 금지를 푸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부자구단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구단의 협상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유명무실했던 외국인선수 몸값상한선(30만 달러)은 2014년 1월 폐지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년계약 금지, 재계약 대상 외국인선수 협상시한(12월 31일) 등의 적용에 있어서 리그의 투명성과 KBO의 권위가 손상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NC와 에릭 테임즈, 벅센과 앤디 밴 헤켄의 다년계약 의혹, 두산과 더스틴 니퍼트의 해를 넘긴 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실행위원회는 5일 승리수당(메리트) 금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적발된 구단은 신인 드래프트 권리를 박탈하자"는 과격한 제안까지 나왔다. 이미 '벌금 10억원'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진짜 관건은 제재안이 아니라 지키려는 의지다.

리그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보류선수 제도도 약용되기 십상이다. 구단들은 약자인 유망주 선수들을 신고선수 신분으로 전환시켜 돈을 아끼고, 보류선수의 윗타리를 벗어난다. 신생팀 kt의 특별지명으로부터 자기 팀 선수를 지키기 위해 SK와 삼성은 임의탈퇴 제도를 남용하다 지탄을 받았다. 심지어 한화는 전적으로 분류된 선수를 방출시켜서 FA 보상선수로 못 찍게 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최영환을 롯데에 빼앗기는 자승자박을 연출했다.

규약을 우습게 여기는 구단들의 횡포에 피멍이 드는 것은 KBO의 자산인 선수들이다. 야구계에선 "이럴 바에는 보류선수를 65명으로 제한한 규정을 계속 둘 명분이 얼마나 되느냐? 차라리 100명이나 200명이나 더 보류하게 하는 편이 낫다"는 현실적 지적도 들린다.

곳곳에서 노출되는 KBO 규약 자체의 허술함은 엄밀하게 말해 새삼스러운 사안이다. 규약 보안을 위해 단장들과 KBO는 5일 실행위원회에서 협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빈틈없는 규정을 만들자는 의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리그의 투명성을 수호하려는 공동체의식이다.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서 최선의 길은 게임 당사자 전원이 처음의 약속을 지켰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홀췌해져 돌아온 봉중근 "선발전환은 마지막 도전"

사이판서 개인훈련... '독기' 품고 귀국



예비 프리이전트(FA) 봉중근(36·사진)과 유규민(31·이상 LG)이 독기를 품었다. 나란히 해외로 개인훈련을 떠났고, 몸무게를 줄여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함께 돌아왔다.

봉중근은 지난 시즌 후 젊은 선수들 위주인 일본 고치 마무리훈련 참가를 자청했다. "고참이라고 예외는 없다"는 이상문 감독의 전제조건에 따라 강도 높은 훈련을 모두 소화했다. 마무리훈련을 마친 뒤에는 골장 사이판으로 떠났다. 또 사이판 일정이 끝나자 바로 이동해 훈련을 이어갔다.

새해가 밝은 뒤 귀국한 봉중근의 얼굴은 새카맣게 타 있었다. 몰라볼 정도로 홀췌해진 모습이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훈련강도를 짐작케 했다. 그는 "선발일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의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감량한다"며 "시즌에 체중이 불어나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최대한 뺀다. 10여년 만에 91kg는 처음이다.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봉중근은 선발 전환을 "마지막 (도전)"이라고 말했다. 목소리에는 지난해 마무리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올해 선발로 보직을 바꿔 다시 도전하는 비장함이 서려있었다. FA라는 개인숙제도 있다. 그는 "팬들에게 다시 '봉중근'을 입증시키고 싶어서 더 신경 써서 훈련했다"며 "1~3선발을 편하게 해주는 4~5선발이 되겠다. 10개 구단 4~5선발 중 가장 잘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생애 첫 FA를 앞둔 유규민도 지난 시즌 후 구단에 연봉을 백지위임하고 사이판으로 떠났다. 키 184cm, 몸무게 75kg. 큰 체격이 아님에도 체중이 3kg나 줄 정도로 혹독하게 감량질을 했다. 3년 연속 선발 10승을 올렸지만 더 잘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매년 영상을 보면서 연구한다"며 "어차피 시즌이 끝나면 가치를 평가 받는 것이다. 쉽지 않은 걸 알지만 FA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선발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베이스볼 퍼플 | '줄무늬 유니폼' 입은 정상호의 각오

'유리몸' 정상호는 잊어달라

포수 정상호(34)는 지난해 말 프리이전트(FA) 자격을 얻어 4년 총액 32억원에 LG로 이적했다. 아직은 새로운 팀에서의 생활이 여색하고 낯설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은 그에게 기대와 설렘을 안긴다. 그는 "생각도 못 했는데 LG가 날 불러줘서 기뻐"며 "팀에 좋은 투수들이 많아서 기대된다. (최)경철이 형, (유)강남이와 함께 연구하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올 시즌은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하는게 목표
최경철·유강남과 선의의 경쟁...함께 성장할 것



●하루 빨리 LG 투수들의 공을 받고 싶다!

포수는 '아전사령관'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LG에는 확실한 주전 포수가 없었다. 최경철(36)과 유강남(24)이 두각을 드러냈지만, 도루저지율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가 접전일 때 도루저지가 되지 않으면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기 쉽다. LG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FA 시장에서 정상호를 데려왔다. 정상호는 "(도루저지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조심스러워했지만, "투수들과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스프링캠프에서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G에는 봉중근 선배, 이동현, 유규민, 류제국 등 고참 투수들부터 잠재력이 뛰어난 어린 투수들까지 좋은 투수들이 많다. 하루 빨리 공을 받아보고 싶다"며 눈을 반짝였다.

●최경철, 유강남과 함께 발전하기를!

물론 정상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최경철, 유강남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일이다. 정상호 역시 FA로 영입됐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포지션인 만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나 혼자 잘한다고 팀이 잘 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최)경철이 형과 (유)강남이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 함께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정상호는 올 시즌 목표도 소박하게 잡았다. "건강하게, 최대한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늘 따라다니는 '유리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도 깨부수고 싶다. 그는 "올해는 정말 부상이 많다는 편견을 깨보고 싶다. 12월부터 집 근처 헬스장에서 웨이트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며 몸을 만들었다"며 "밖에서 봤을 때 LG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부러웠다. 그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LG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 더 신나고 힘이 날 것 같다.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돼서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지난해 말 LG의 유일한 프리이전트(FA) 영입이었던 포수 정상호는 빠른 팀 적응을 목표로 잡고 있다. 참살 | 김충원 기자 won@donga.com